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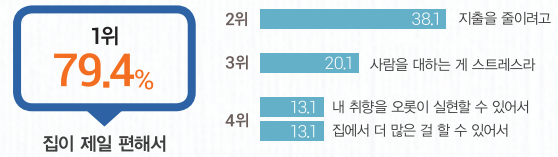
# 밀레니얼 세대는 홈루덴스족, “집에서 노는 게 좋다”



## 밀레니얼 세대 72.3% ‘나는 홈루덴스족’

홈루덴스족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n=3,839 복수응답, 단위 : %)



\* 밀레니얼 세대 3,839명 대상 조사, 자료제공 : 잡코리아×알바몬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홈루덴스족’들이 늘고 있다. ‘홈루덴스족’이란, 집을 뜻하는 ‘홈(Home)’과 ‘유희, 놀이’를 뜻하는 루덴스(Ludens)를 합친 말로, 자신의 주거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는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30대 밀레니얼 세대 3839명을 대상으로 ‘홈루덴스족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 참여한 응답자 중 72.3%가 스스로를 집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홈루덴스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76.5%)들이 남성(61.4%)에 비해 15.1%p 더 높았다. 이들이 홈루덴스족이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집이 제일 편하기 때문’이 응답률 79.4%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지출을 줄이고 싶기 때문(38.1%)’,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이기 때문(20.1%)’ ‘집에서는 내 취향을 오롯이 실현할 수 있기 때문’과 ‘오히려 집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 각각 13.1%로 상위 5위 안에 올랐다. 스스로를 홈루덴스족이라고 밝힌 2,777명을 대상으로 평소 집에서 즐기는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형TV나 빔프로젝트 등을 설치하고 홈영화를 즐긴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배달앱이나 가정 간편식 등을 이용해 유명 식당 음식도 집에서 즐기는 편’이라는 응답도 43.2%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콘솔 게임 등 집에서 게임하기(29.3%), 커피부터 차, 디저트까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즐기는 홈카페(27.0%),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25.4%), 피부 관리도 집에서 직접 하는 홈케어(24.5%), 내 집 꾸미기, 셀프 인테리어(13.4%), 집 베란다 거실에서 편하게 즐기는 홈캠핑, 홈파티(12.7%), 자연도 집에서 만끽하는 홈가드닝(6.4%)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홈피부케어(17.0%p↑)나 홈카페(7.7%p↑)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홈게임을 한다는 응답이 28.1%p나 높아 차이가 있었다.

홈루덴스족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는 ‘혼자 잘 노는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응답률 69.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여유를 좋아하는 사람(35.8%),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23.7%), 자유로운 사람(23.2%), 조용한 성격의 사람(10.6%), 게으른 사람(7.4%), 대인관계가 부족한 사람(6.3%) 등의 의견들도 있었다. 또한 91.2%는 향후 홈루덴스족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홈루덴스족이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증가 등 개인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해 졌고(39.4%) 소화행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었기 때문(30.8%)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외에 디지털 문화의 발달(17.7%), 배달 앱, 새벽 배송 등의 보편화(6.2%) 등도 홈루덴스족을 증가시키는 이유로 꼽혔다. **KAA** 이명진 soziro01@kaa.or.kr